

漢書藝文志의 成立과 그 分類體制

李 炳 漢

(서울대학교 文理大 助教授)

一. 緒 言

人類文化의 發展에 寄與한 모든 貢獻中 人間知慧의 最高結晶인 書籍의 功能이 가장 컸음을 否認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또한 앞으로의 發展을 위하여도 書籍이 차지하는 比重은 絶對的인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歷史와 더불어 累積되어 온 이들 數 없이 많은 書籍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參考하고 活用하는가? 여기에 現代學問으로서의 目錄學(圖書分類學)의 意義가 提起된다.

中國의 黃河流域은 人類文化 發祥地의 하나요, 中國人은 自古로 文字를 崇尚하였고 책을 尊重히 여겨왔다. 그리하여 悠久한 傳統과 함께 그들은 그야말로 浩如煙海한 書籍을 生産하였다. 일찌기 東洋文化의 領主로 君臨하여온 中國의 學者들은 그들의 文化遺産—— 書籍을 어떻게 保存하여 왔고 分類하여 왔는가를 淵源의인 意味에서 漢書藝文志의 成立을 中心으로 概觀하여 보기로 한다.

二. 中國學術의 勃興과 그 分類

1. 學術의 勃興

漢代의 史官 司馬遷은 그의 著 <史記>에서 中國의 歷史를 黃帝 때부터 叙述하고 있으며, <尚書>는 堯·舜時代의 記錄을 包含하고 있으나 이는 모두 傳說的인 時代에 不遇하고, 서기 1898년에서 서기 1899년 사이에 河南省 安陽縣 小屯村에서 發掘된 龜甲獸骨에 새겨진 卜辭片의 整理研究로 中國의 有史時代는 비로소 西歷 紀元前 十四世紀까지 그 遡及이 可能하게 되었다. 그러나 中國人들은 그들의 歷史를 著述 또는 云謂함에 있어서 앞에 말한 傳統時代를 빼놓지 않는다. 그리하여 中國의 上古史에서는 으레히 所謂 三皇五帝가 登場한다. 勿論 그들이 幻想의이며 假空의인 歷史人物임을 말할 나위도 없다. 傳說에 의하면 三皇이란 天皇·地皇·人皇을 이르는 말로, 이들은 모두 天地開闢과 同時에 出現한 人格神이며, 五帝란 有巢氏, 燧人氏, 伏羲氏, 神農氏 그리고 黃帝를 統稱하는 말로, 이들은

各各 人類의 衣食住 生活方法을 發展시켰고, 黃帝때에 이르러서는 그의 史官인 倉頡이 짐승과 새 발자국을 보고 文字를 創造하였다고도 한다.

黃帝에 이어 堯·舜·禹 세 임금이 보다 具體的인 意味에서의 統治者로 登場한다. 孔子以後 中國의 文人 學者들은 이 時代를 하나의 理想으로 設定하고 있으며 中國의 모든 學術思想도 이때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甲骨文과 金文의 研究로 中國에 있어서의 書籍의 發生도 毛筆 등 筆寫工具의 發明과 더불어 殷商時代부터 비롯한다고 看做하는 것이 一般的인 見解인 바, 時代의으로 서로 附應이 되는 터이다.

文字가 創造되고 書寫道具도 發明되자 이를 利用한 記錄이나 著述의 生産이 可能하여졌을 것임은 勿論이다.

원래 學術思想史의 時代區分이 劃一的일 수는 없는 것이지만 中國의 學者들은 大體의으로 上古로부터 春秋時代 孔子·老子 以前까지를 學術思想의 胚胎時期로 보고 있다. 여기에서 學術思想史의 時代區分問題에 對하여는 그 是非를 且論하겠거니와, 于先 當時의 學術에 對한 記錄을 찾아보면 三皇五帝의 傳說時代를 빼고 春秋以前 夏, 商, 周 即 所謂 三王時代의 學術을 概括하는 記錄이 <禮記·文王世子>에 보이는 바·

「凡三王教世子, 必以禮樂, 樂所以修內也; 禮所以教外也. 禮樂交錯於中, 發形於外, 是故其成也擇, 恭敬而溫文.」

여기에서 禮와 樂은 教育의 內容을 分類한 것이거 결코 어떤 圖書의 種類를 나눈 것은 아니다. 當時에 講學의 內容에 따른 分類는 있었지만 圖書의 分類는 없었다. 許慎의 <說文解字序>에 引用된 黃帝의 史官 倉頡의 造字傳說을 보면·

「黃帝之史倉頡, 見鳥獸蹏迹之迹, 知分理之可相別異也, 初造書契.」

라 하였고, 또 <僞孔序>에 보면·

「古者伏羲之王天下也, 始畫八卦, 造書契以代結繩之治, 由是文籍生焉.」

이라 하였으며, 그 밖에 <易 繫辭傳>에·「百官以萬民以察.」이라한 것이나, 亦是 <說文>에·「

治, 萬品以察.]이라한 것, 또는 <九家易>에 ·「百官以書治職, 萬民以契明其事.」라한 것 등을 보면 書契의 段階에 이르러서는 文字의 効能이 原始段階에서의 助記憶의인 한계를 넘어 實質的으로 그것이 官府의 治事 典例나 民間의 信約用으로 使用되었을 可能性을 認定할 수 있다.

그후 周公時代에 이르러 中國古代學術思想의 精神條理가 대충 形成具備되고, 學問의 分類도 점차 細密化하였다. <周禮 地官>에 보면 三王時代以來 典籍이 漸多하여지고, 簡冊이 繁多하여졌으므로 그 收藏이 容易치 않아 太史, 小史, 內史, 外史, 小行人, 大司徒, 司書, 大胥, 司士, 司民, 司約, 司會, 春官, 太卜 등 諸官을 두어 이를 分掌시켰다는 記錄이 보이는 바, 亦是 뚜렷한 圖書 自體의 分類는 아니고 職掌에 따라 各其 그에 關係되는 典籍을 管理하도록 한 것으로, 그들이 管理하는 典籍이란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行政文書類에 屬하는 것들이다.

한편 當時의 教育에 關하여 亦是 <周禮>에 보면 ·

「師氏掌以嫗詔王, 掌國中得失之事, 以三德教國子弟. 凡國之貴游子弟學焉.」

이라 하였는데, 이에 보면 當時의 教育理念은 전혀 統治階級만을 위하여 實施되었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所謂 六德, 六行, 六藝 등도 三王時代의 禮, 樂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단지 教育의 內容에 따른 分類였지 圖書의 分類는 아니었다.

周室의 統治權力이 衰弱하여져 從前까지 줄곧 統治階級만을 對象으로 하던 所謂「王官之學」이 崩壞되고 諸侯들의 互起爭雄으로 戰國時代에 이르러서는 言論思想統制의 解放과 아울러 學問의 自由로운 發展이 可能하게 되어 그야말로 諸子百家가 齊鳴하는 學術思想史上 黃金時代를 形成하였다. 그리하여 具體的으로 思想傾向을 中心으로 한 學問의 分類가 主張되었는 바 當時의 學問에 對하여는 <莊子 天下篇>, <荀子 非十二子篇>, <淮南子 要略訓> 및 <史記 太史公自序>에 보이는 司馬談의 六家論에 詳細하다.

上記 四家의 說을 概觀하건대, 莊子는 學術思想의 源流를 論하였고, 荀卿과 司馬談은 그 學問의 是非를 指陳하였으며, 淮南王 劉安은 學術發生의 原因을 究明한 것으로, 모두 學問의 流派를 따진 것이지 亦是 圖書에 關한 分類는 아니다.

2. 圖書의 分類

中國 上古時代의 典籍에 關하여는 <左傳> 昭王 十二年條에 「三墳, 五典, 八索, 九丘」라는 말이 傳하여지고 있다. 三墳에 對하여는 혹은 「伏羲, 神農, 黃帝之書」라고도 하고, 혹은 「三」이 天, 地, 人을 指稱하는 말로 三皇과도 關係가 있다고 하기도 하며, 五典은 「父

義, 母慈, 兄友, 弟恭, 子孝」의 五常之教를 말한다고 하기도 하고, 五帝之典을 指稱한다고도 하며, 八索은 八卦 또는 素王之法을 말한다고 하기도 하며; 九丘는 九州之志를 말한다고 하기도 하나, 以上の 解釋은 모두 確實한 根據가 없는 것이며, 一般的으로 漠然히 上古時代의 典籍을 指稱하는 말로 通用되고 있다. 三, 五, 八, 九라는 숫자가 어느 基準에 따른 分類를 뜻하는 수도 있겠으나 오늘날 그 內容을 알길이 없으므로 論外로 하는 수 밖에 없다.

周代에 들어와서는 諸官을 두어 典籍을 分掌하도록 하였다는 記錄이 <周禮>에 보이나 이는 모두 職掌에 따른 行政文書類의 管理業務를 뜻하는 것으로 밖에 認定이 안 된다 함은 前述한 바 있다. 上古의 傳說時代로부터 줄곧 學問은 統治階級을 中心으로 한 「王官之學」에 不遇하였던 것이 周室의 衰落으로 戰國時代에는 自由學問으로 發展하였고 많은 思想家들의 言行記錄이나 著述이 今傳되는 터이지만 그들의 言論을 통해서도 亦是 當時의 學術流別에 따른 區分을 窺知할 수 있을 뿐이다.

한편 戰國時代에 孔子가 傳來의 舊籍과 史乘을 刪除하여 六經 即 詩, 書, 禮, 樂, 易, 春秋를 撰述함에 이르러 비로소 書籍의 內容에 따른 分類가 試圖되었던 것이라고 보아 中國에 있어서의 圖書分類의 始祖로 孔子를 推戴하는 見解도 있다.

政治權力構造의 變化에 따른 學問의 自由化와 人材의 見重, 交通의 頻繁, 그리고 文字의 簡便化와 講學氣風의 興盛 등이 모두 春秋戰國時代 中國學術思想 開花의 要因이 되어 個人에 의한 書籍의 著述도 活潑하여졌다. 그러나 秦始皇은 天下를 統一하자 李斯의 建議에 따라 一部 實用的인 書籍만을 除外하고는 所謂 焚書坑儒의 苛酷한 施策으로 모든 學術思想을 殫滅하자 累積되었던 典籍은 大部分 烏有로 化하여 버렸고 學術의 傳授도 아울러 沈滯하여졌다.

그후 漢高祖가 秦楚를 平定하고 帝位에 오른 뒤 歷代인금은 亂世에 있어서의 典籍의 散佚을 補充救濟하기 위하여 大規模의인 圖書整理事業에 힘을 기울이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天下에 詔命을 내려 經籍을 徵求하였다. 這問의 經緯에 對하여 班固의 <漢書藝文志序>에 보면 ·

「昔仲尼沒而微言絕, 七十子喪而大義乖. 詩分爲四, 易有數家之傳. 戰國從衡, 眞僞分爭, 諸子之言, 紛然殺亂. 至秦, 患之, 乃燔滅文章, 以愚黔首. 漢興, 改秦之敗, 大收典籍, 廣開獻書之路. 迄孝武世, 書缺簡脫, 禮壞樂崩, 聖上喟然而稱曰·『朕甚閔焉』, 於是建威書之策, 置寫書之官, 下及諸子傳說,

皆充秘府。成帝時，以書頗散亡，使謁者陳農求遺書於天下。」

이렇게 하여 蒐集된 各種 典籍은 그 系統이 模糊하고 類別이 混亂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하여 漢成帝 以後 具體的으로 圖書의 校讎分類作業이 展開되었다.

三. <別錄>과 <七略>

班固의 <漢書 藝文志序>에 보면 ..

「詔光祿大夫劉向，校經傳諸子詩賦；步兵校尉任宏，校兵書；太史令尹咸，校數術；侍醫李柱國，校方技。每一書已，向輒條其篇目，撮其指意，錄而奏之。」

이에 보면 成帝 때에 이르러는 高祖以來 天下에 詔命을 내려 거두어 들인 典籍들에 對한 校讎作業이 進行되어 專門分野別로 그 業務를 擔當시켰으나 實質的인 圖書分類作業의 段階까지는 미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當時 劉向은 校書作業의 總責任者로서 各分野別로 校書作業이 끝나는데로 한 책 마다 그 篇目を 적고 그 책의 대체적인 내용을 적어 임금에게 바쳤는데 이것이 바로 <別錄>이다. 梁 阮孝緒의 <七錄序>에 보면.....

「昔劉向校書，輒爲一錄，論其指歸，辨其訛謬，隨竟奏上，皆載在本書。時又別集衆錄，謂之別錄，即今之別錄是也。」

그러나 이러한 校書作業은 劉向 一代에 完成되지 못하고 그의 아들 劉歆에 依하여 繼承되었다. 역시 <漢書 藝文志序>에 보면.....

「會向卒，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歆於是總群書而奏其七略，故有輯略，有六藝略，有諸子略，有詩賦略，有兵書略，有數術略，有方技略。」 이에 처음으로 圖書가 그 內容에 따라 種別되어 中國目錄學史上 劉歆의 <七略>이 分類編目的 嚆矢가 되는 셈이다.

<前漢書 卷三十六 劉歆列傳>에 .. 「復領五經，卒父前業，乃集六藝群書，種別爲七略。」이라 한 것도 바로 이를 뜻한다. 不幸히도 劉向의 <別錄>이나 劉歆의 <七略>은 唐末에 이미 散佚되어 버리고, 오늘날 비록 一部分의 輯本이 傳해지기는 하나 도저히 그 全貌를 살피 볼 도리는 없다. 그러나 班固가 <漢書 藝文志>를 撰述함에 있어 劉歆의 <七略>을 基本으로 하였음을 그 序에 .. 「今刪其要，以備篇籍。」이라 밝히고 있어 그 片段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劉向 父子가 秘府의 典籍를 校讎整理하는데 있어서의 作業態度는 오늘날 傳해지는 그 敘錄을 통하여 살펴 보건대 먼저 各種 異本을 될 수 있는데로 廣範하게 搜集網羅하여 서로 對照하여 비인 곳을 補充하고 重複을 除去하였으며, 一端 정리가 끝난 것에 對하여

는 篇章을 나누고 目次를 나누어 붙였고, 文章이 빠졌거나 뒤섞인 것 또는 틀린 글자를 바로 잡아 正本을 만들어 種別 區區하게 불러오던 書名을 定着시켰다.

또한 劉向 父子가 各書를 校定함에 있어 써서 모은 敘錄은 주로 書名과 篇目的 著錄; 校讎作業의 經過; 著者の 生平과 思想의 紹介; 書名의 含義, 著述의 動機와 經緯 및 그 책의 性質에 對한 說明; 책에 대한 眞僞의 辨別; 思想 또는 史實의 是非에 對한 評論; 學術의 源流에 對한 敘述; 책의 價値에 對한 判定 등의 內容을 포함하는 것이었다.

四. <漢書藝文志>

1. 成立

오늘날 中國의 一般 學者들은 漢 成帝·哀帝 때의 劉向, 劉歆 父子의 秘府典籍 整理事業을 中國目錄學의 起源으로 보고 있다. 劉向 父子에 依하여 된 <別錄>, <七略>은 中國目錄學의 하나의 典型이며, 또한 가장 오랜 官廳의 藏書目錄임이 事實이다.

에당초 劉向이 校書作業을 進行함에 있어 衆錄을 따로 모아 <別錄>을 지었으며, 그 후 아들 歆이 父業을 繼承하여 <七略>을 지었다 함은 앞에 引用한 梁 阮孝緒의 <七錄序>에도 指擣된 바 있다. 그러므로 <別錄>은 그 名稱의 由來가 劉向이 校書作業이 完了된 典籍의 敘錄을 따로 적어 두었다는 뜻에서 나온 것이지, 後世 一部分의 見解처럼 <七略>의 別錄은 아니었음이 自明하다. 勿論 劉向은 그 當代에 作業을 完成하지 못하였으므로 對象典籍을 分類하는데까지 손이 미치지 못하였을 것임도 짐작할 수 있는 일이다. 이런 뜻에서 中國의 分類目錄은 劉歆의 <七略>에서 비롯된다고 보는 것이 妥當하다.

한편 劉歆의 <七略> 成立에 關해서는 班固의 <漢書 藝文志序>에 .. 「會向卒，哀帝復使向子侍中奉車都尉歆卒父業。歆於是總群書而奏其七略。」이라 言及이 되어 있고, 또 阮孝緒의 <七錄序>에 .. 「子歆撮其旨要，著爲七略。」이라 指擣되어 있다 실이 歆이 校書作業을 繼承完了하고 나아가 分類作業까지 擴大시켰던 것임을 알 수 있다.

<漢書 藝文志>의 成立에 關해서는 班固 自身 同序에서 <七略>의 成立過程과 內容을 說明하고, 끝머리에 .. 「今刪其要，以備篇籍。」이라 한 것을 보아 正적으로 劉歆의 <七略>이 그 土壘가 되었던 것이 事實이다. <隋書 經籍志>의 序에 보면 또 ..

「歆遂總括群篇，撮其旨要，著爲七略。一曰集略，二曰六藝略，三曰諸子略，四曰詩賦略，五曰兵書略，六曰術數略，七曰方技略。大凡三萬三千九百十卷。王

莽之末，又被焚燒。光武中興，篤好文雅。明章繼軌，尤重經術，四方鴻生鉅儒，負資自遠而至者，不可勝算。石室蘭臺，彌以充積，又於東觀及仁壽閣集新書，校書郎班固，傳毅等典掌焉。並依七略而爲書部，固又編之以爲漢書藝文志。」

라 叙述되어 있어 班固의 <漢書藝文志>의 淵源이 劉歆의 <七略>이었음을 말하고 있다.

또 <漢書藝文志>의 分類體裁가 그 順序와 內容에 있어 전혀 <七略>의 그것과 相同하나 다만 輯略이 빠져 있을 뿐이다. 輯略에 對하여는 亦是 梁 阮孝緒의 <七錄>序에 ·「六篇之總最，故以輯略爲名。」이라는 說明이 있는데，<漢書藝文志>의 內容이 六藝，諸子，詩賦，兵書，數術，方技의 六略으로 나누고，每略에 大序가 있고 每家의 뒤에 다시 小序가 있어 先秦學術思想의 源流와 演變에 對하여 簡명한 叙述이 있는데，혹 <七略> 가운데의 輯略이 원래 叙述의인 性格의 것이므로 班固가 이것을 다시 內容別로 各略에 配어 붙였는지도 모를 일이다.

2. 分類體裁

<漢書藝文志>는 <七略>의 形式的인 七分法 體裁에서 實在對象內容의 分類가 아닌 輯略을 빼어 버리고 六分法으로 그 分類體裁를 固定시켰다. 그리하여 그 內容을 六藝，諸子，詩賦，兵書，數術，方技의 六略으로 大分하고 各略을 다시 小類로 細分하여 條流를 세우고 書名을 列記하고 篇數와 傳家까지도 밝혔다. 그리고 各 小類의 書名을 列記한 末尾에 所括하는 傳家數와 全體 篇數를 記錄하고，이어 이에 對한 內容이나 系統說明을 附加하고 혹은 批判分析하고 있는데 이것을 『小序』라고 한다. 이런 形式으로 各略에 包含된 小類에 해당하는 書名과 小序가 다 끝나면 그 略의 總傳家數와 篇數를 表示하고，이어 小類에 있어서의 小序와 같은 性格의 大序를 붙여 該略 學術의 大勢를 統論하고 있다.

이제 <漢書藝文志>의 分類를 例示하면

- 六藝略：易，書，詩，禮，樂，春秋，論語，孝經，小學(9종)
- 諸子略：儒家，道家，陰陽家，法家，名家，墨家，縱橫家，雜家，農家，小說家(10종)
- 詩賦略：賦一，賦二，賦三，雜賦，歌詩(5종)
- 兵書略：權謀，形勢，陰陽，技巧(4종)
- 數術略：天文，歷譜，五行，著龜，雜占，形法(6종)
- 方技略：醫經，經方，房中，神仙(4종)

小序의 例를 諸子略 中の 法家에서 취하여 보면，먼저 書名，篇數의 列記 끝에 「右法十家，二百一十七篇」이라 쓰고，이어··

「法家者流，蓋出於理官。信賞必罰，以輔禮制。易曰·『先王以明飭法』，此其所長也。及刻者爲之，

則無教化，去仁愛，專任刑法，而欲以致治，至於殘害至親，傷恩薄厚。」

이는 그 學派의 淵源과 思想을 說明하고 그 長短點을 批判分析하는 內容이다. 그러나 모든 小序가 다 이러한 形式을 갖추고 있는 것은 아니고，各略마다 그 性格을 著干 달리하고 있다. 六藝略의 경우，對象으로 하는 古書를 中心으로 그 經師傳授의 說明에 置重하고 있고；諸子略의 경우 各派의 思想系統을 中心으로 그 思想의 優劣을 가리는데 偏重하였으며；兵書略은 對象內容의 作用을 中心으로 簡單하게 그 類名의 意義說明에 그쳤고；數術略과 方技略은 職業 또는 體裁와 作用을 아울러 言及하여 그 是非를 가리고 있으나 時世의 思潮나 職能을 그 內容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學者들에 依한 傳授 등에는 說明이 없으며；詩賦略의 경우에는 小序가 없고，體裁를 中心으로 하여 大序가 있을 따름이다. 總序의 例를 詩賦略에서 取하여 보면，末尾에 「凡詩賦百六家，千三百一十八篇」이라 著錄한 다음··

「傳曰·『不歌而誦謂之賦，登高能賦，可以爲大夫。』言感物造端，材知深美，可與圖事，故可以爲列大夫也。古者諸侯卿大夫交接鄰國，以微言相感，當揖讓之時，必稱詩以諭其志，蓋以別賢不肖而觀盛衰焉。故孔子曰·『不學詩，無以言也。』春秋之後，周道寢壞，聘問歌詠，不行於列國。學詩之士，逸在布衣，而賢人失志之賦作矣，大儒孫卿及楚屈原，離譏憂國，皆作賦以風，咸有惻隱古詩之義。其後，宋玉，唐勒，漢興，枚乘，司馬相如，下及揚子雲，競爲修麗閎衍之詞，沒其風諭之義。是以揚子悔之曰·『詩人之賦麗以則，辭人之賦麗以淫。如孔氏之門人用賦也，則賈誼登堂，相如入室矣，如其不用何？』自孝武立樂府而采歌謠，於是代趙之謳，秦楚之風，皆感於哀樂，緣事而發，亦可以觀風俗，知薄厚云。序詩賦爲五種。」

詩賦의 概念定義에서 시작하여 그 効能 및 變遷을 고루 論及하고 있어 한 토막의 史料 이르고 있다.

3. 分類標準

<漢書藝文志>가 모든 圖書를 六分法에 依하여 分類한 것은，<七略>의 體裁에 따른 것임을 前述하였거니와 그것을 六藝，諸子，詩賦，兵書，數術，方技 등으로 차례 지은 것은 또 그대로 圖書의 傳來나 內容에 따른 一定한 標準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神明之德에 통달하여 萬物之情을 類推하는 理致에 關한 <易>과 何圖洛書의 天書를 聖人이 則之하여 天下를 統治한 記錄이라는 <書> 및 其他 <詩>，<禮>，<樂>，<春秋>，<論語>，<孝經>등 政治와 教育에 關한 古典 및 그의 傳習類를 모아 六藝略으로 맨 앞에 配置하였다. 이는 그 古典의인 圖書內容을 重視함과 아

올려 撰述의 時代도 오래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어 諸子略의 경우, 戰國時代에 周室의 沒落으로 인한 王道의 衰微에 따라 諸侯들의 政治欲望에 迎合하여 나타난 儒, 墨, 道, 法, 陰陽, 名, 法, 墨, 縱橫, 雜, 農 諸家의 說을 서로 같은 學派로 묶어 一類로 삼았다.

諸子略이 六藝略의 바로 다음에 配置된 것은 그 내용이 모두 現實政治와 聯關된 學派主張이어서, 大序에 있는 바와 같이·「若能修六藝之術, 而觀此九家之言, 舍短取長, 則可以通萬方之略矣。」라고 認定되었기 때문이다. 다만 原來의 分類에서 諸子略속에 포함되어 있는 小說家者流는 그것이 모두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矣.」이기 때문에 따로 取扱되고 九家之言만을 論及한 것이다. 이는 六藝略에서 小學이 그 내용으로 보아 文字教育에 關한 것으로, 오히려 思想的인 內容이나 古典的인 價値에서 一類로 묶은 六藝略의 其他 圖書와 달라, 實質的인 分類標準은 하나의 專門學術書로 取扱된 兵書, 數術, 方技 各略의 各流 圖書分流의 경우와 相通한다. 詩賦略은 모든 散文이 六藝와 諸子二略에 다 包括되었으므로 따로 韻文文章의 體裁가 서로 같은 것들을 各各 一類로 묶어 賦一(屈原 등), 賦二(陸賈 등), 賦三(孫卿 등) 및 雜賦와 詩歌로 나눈 것이다.

詩賦略이 諸子略에 이어 配置된 것은 詩賦略 大序에·「自孝武立樂府而采歌謠, 於是代趙之謳, 秦楚之風, 皆感於哀樂, 緣事而發, 亦可以觀風俗, 知薄厚云.」라 있는 바와 같이 애당초 詩賦를 純粹한 文學의 方法이나 形態로 認識하지 않고 오히려 補察時政의 參考資料로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諸子略 小說家者流 小序에서 小說을·「小說家者流, 蓋出於稗官. 街談巷語, 道聽塗說者之所造也. 孔子曰·『雖小道, 必有可觀者焉. 致遠恐泥, 是以君子弗爲也.』 然亦弗滅也, 閭里小知者之所及, 亦使綴而不忘. 如或一言可采, 此亦芻蕘狂夫之議也.」라고 輕蔑하였고, 大序에서·「諸子十家, 其可觀者, 九家而已.」라고 하였으면서도·「王者欲知閭巷風俗, 故立稗官, 使稱說之.」하였다는 緣起로 해서 그것이 諸子略의 末尾에 配置된 것과 比較하여 생각할 만하다.

分類標準에 있어 專門的인 學術研究에 關한 圖書를 類別로 모은 것은 兵書, 數術, 方技 三略이 같다. 그 配置順序에 있어서는 兵書의 內容이 王官의 武備에 關한 것으로, 兵家의 目的이 「以師克亂而濟百姓, 動之以仁義, 行之以禮讓.」이므로 統治權의 維持와 直接的인 關聯이 있어 當然히 優先되는 것이었다. 끝으로 數術과 方技의 二略중 數術略은 包括하는 各流가 모두 聖王의 參政하는 바로, 政策執行의 豫備的인 成敗吉凶判斷이나 豫後的인 象徴의 推測解釋에 關한 것이므로, 人間個體의 身體組織에 關한 病理나 治療法 乃至는 個人

의 性命保全 등 生生之具에 關한 內容을 包括하는 王官之學의 一部에 지나지 않는 方技略보다는 앞에 놓았다.

以上에서 보면 <漢書藝文志>의 分類標準과 配列基準은 그것이 전혀 統治權力의 維持를 위한 王官之學의 一貫된 觀念에 의하여 이룩된 것임을 알 수 있다.

五. <漢書藝文志> 以後 中國 圖書分類法의 變遷

魏晉以來 學術의 繁盛에 따라 典籍의 刊行이 活潑하여지자 <漢書藝文志>의 原始的인 方法으로는 그 內容을 包括하기가 어려워져 새로운 分類法을 摸索하기에 이르렀다. 魏 秘書郎 鄭默이 <中經>을 지어 四部分類法을 試圖하였고, 晉 秘書監 荀勗이 <中經>에 根據하여 <新簿>를 지어 모든 圖書를 甲(經), 乙(子), 丙(史), 丁(集) 四部로 나누었는데, 오늘날까지 通用되고 있는 經, 史, 子, 集 四分法의 起源이 되었다. 이어 晉 李充의 <四部書目>에 이르러 <新簿>의 經, 子, 史, 集, 順序를 經, 史, 子, 集으로 고쳐 典型을 마련하였다.

四部分類法이 魏代에 비롯되어 晉代에 定型을 본 후 後世의 分類著錄이 대체로 이에 따랐으나 <七略>을 根據로한 分類法이 完全히 廢用된 것은 아니고 宋, 齊, 梁, 陳, 隋 諸朝에 걸쳐 계속 崛起하여 四部分類法과 競爭的인 形勢를 維持하였다. 宋 王儉의 <七志>, 梁 阮孝緒의 <七錄>, 隋 許善心的 <七林> 등이 그 代表的인 것들이다. 그 뒤 <隋書經籍志>는 <七錄>의 七分法을 折衷調整하여 四分法을 固定化하였다. 그리하여 唐, 宋, 遼, 金, 元, 明, 清 各朝代에 걸쳐 그 具體的인 方法에 若干의 差異는 있으나 原則的으로 四分法을 繼承하여 오늘날에 이르렀다. 勿論 中國에 있어서 歷代 圖書分類法이 七分法과 四分法에 局限되었던 것은 아니다. 個人에 따라서는 보다 細分된 方法을 主張하기도 하였으니, 宋代 鄭樵 <通志>의 十二分法 등은 그 예이다.

六. 結 語

現代西洋學問의 方法이 導入되기 以前까지 中國의 圖書分類는 各處 內容에 依한 것이었다. 또 著錄方法에 있어 간혹 撰者名이 書名에 先行하는 경우가 있으나 一般的으로 書名爲主였다. 그리고 著錄의 對象은 宋代以來 個人藏書日錄이 不無하나 대개가 宮室圖書館(秘府)의 藏書였다. 現代圖書館이 十分法에 依한 分類法을 援用하고 있고, 讀者들의 便利를 위하여 內容別, 書名別, 著者別로 카아드가 作成 備置되어 있는 것에 비하면 中國古來의 圖書分類法은 幼稚하기 이를데 없겠으나, 그것이 일찍부터 活用되었고 改善되어 나갔다는 點에서 史的意義가 크다 하겠다.